

세계 음악 교수법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사례 연구

Surfacing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World Music Pedagogy: A Case Study

차동주*

Dong-Ju Cha 

초록 본 연구는 Patricia S. Campbell이 고안한 세계 음악 교수법(World Music Pedagogy)을 적용하여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사례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음악교육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들($N = 20$)로 구성되었다. 교수법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선정된 제재곡은 <Chicitios pero Picos>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2024년 1학기동안 총 15주에 걸쳐 세계 음악 교수법을 학습 후 개인 면담과 학급 토론에 참여하고 자기 성찰지를 제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준다. 둘째, 감상, 연주, 창작 영역간 통합을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유도와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셋째, 창작 단계에서 음악적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을 증대시킨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현장 교사들이 간학문적 영역과 감상, 연주, 창작 영역을 단계별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세계 음악 교수법을 다문화음악교육의 교수법적 틀로써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감상영역, 다문화 음악교육, 사례 연구, 세계 음악 교수법, 연주영역, 음악 교수법, 창작영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surfac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World Music Pedagogy(WMP) as designed by Patricia S. Campbell. Study participants($N = 20$), who were enrolled in the Elementary Music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course, engaged with the pedagogical theory of WMP and learned a representative musical piece in the Cumbia of a coastal musical genre, <Chicitios pero Picos>. They participated in interviews, class discussions, and submitted reflection papers to share the pedagogical meaning from their perspectives. Findings centered around (a) expanding one's understanding of global musical cultures and traditions; (b) encouraging one's active participation and creativity via the content integration of music appreciation, performing, creating and interdisciplinary areas; and (c) maximizing one's learning achievement from the creating stage. These findings strengthened the significance of the application of WMP to a diverse range of music genres around the world when in-service elementary teachers organize world music lesson plans.

Key words: case study, creating, general music pedagogy, music appreciation,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performing, world music pedagog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dcha3@asu.edu

Ph.D., Arizona State University, 50 E Gammage, Pkwy, Tempe, AZ 85281, USA

Received: 21 August 2024, Reviewed (Revised): 4 October (25 October) 2024, Accepted: 29 October 2024

© 2024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학교 현장에서의 감상 교육은 학습자에게 수렴적 사고(conversant thinking)에만 머무르게 하기 쉽다(Kratus, 2017). 학생들은 제재곡을 듣고, 악곡의 조성은 무엇인지, 어떤 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는지, 어떠한 리듬꼴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된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렴적 감상 학습에 해당된다. 이처럼 제재곡의 음악적 요소에 청각적으로 집중시키는 과제들이 기초 감상 지도법의 주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단순히 답이 제한되어 있는 질문을 청각적 혹은 인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습 활동 이외에도, 감상 수업에서 학습자의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이끌어내는 활동이 가능하다. 최근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한 실행 연구에 따르면(Cha, 2023a), 가장 제재곡을 듣고 상징적 표현 활동과 학급 토론을 통해 음악적 이해를 넓혀주는 교수 학습 방법이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나 창작에 비해 감상 수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까닭은 아마도 감상 활동 자체가 타인에게 어떠한 학습의 결과물처럼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음악 교수법(World Music Pedagogy; WMP)은 기존의 감상 영역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 연주와 창작 영역을 단계별로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제재곡이 지닌 고유의 문화를 학습자들에게 체득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Bartolome, 2019; Campbell, 2004; Watts, 2018). 총 5단계로 구성된 세계 음악 교수법에서 학습자들은 초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청취를 통해 특정 요소에 집중하거나 전반적인 음악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한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들은 감상 제재곡이 지닌 특징적인 음악적 요소를 이해하고, 악기 연주에 이르면서 점진적으로 능동적인 음악 활동으로 확장해 나아간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제재곡의 기본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확장해나가 창작활동까지 음악적 사고를 확장시켜 감상 학습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욱이 문화적 요소를 학습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는 통합 단계는 교육과정에서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영역 간 지식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미 학년군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연주, 감상, 창작 영역을 주요 학습의 내용 체계로 삼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교육과정에서 세 영역에 필요한 지식 · 이해/과정 · 기능/가치 · 태도의 역량을 학생들에게 독립적으로 기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은 영역간 연계성을 높여 총체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교수 · 학습 지도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음악 교수법은 음악 교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감상영역과 연주, 창작영역까지 통합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음악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까지 학습할 수 있는 교수법적 틀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이

된다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의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수업과 범교과 학습 주제 연계성에 부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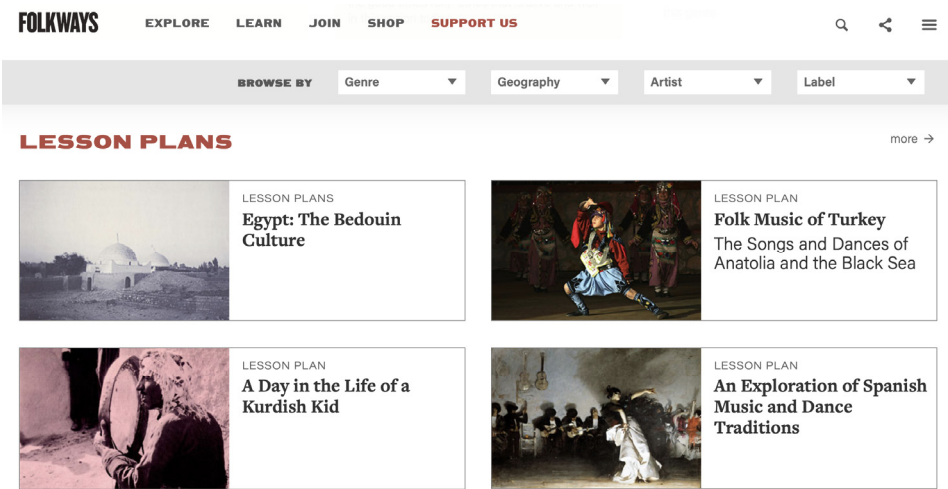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일부 주(state)에서는 세계 음악 교수법 자격증을 취득한 음악교사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자격증(i.e., 코다이, 오르프 교수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a, 2023b). 한국의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수법 자격증 취득률에 대한 실태 연구는 없으나, 그 비율은 미국보다 한국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교수법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대면으로 교육 연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세계 음악 교수법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의 음악교육자로서, 교수법적 이론에 근거하여 세계 음악 교수법의 5단계를 연구자의 음악과 교수법 과목을 수강하는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 적용하고 교수법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음악 교수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 참여 형태는 어떻게 인지되는가?

둘째, 고유한 사회 문화적 정서를 담고 있는 제재곡을 선정하여 세계 음악 교수법을 적용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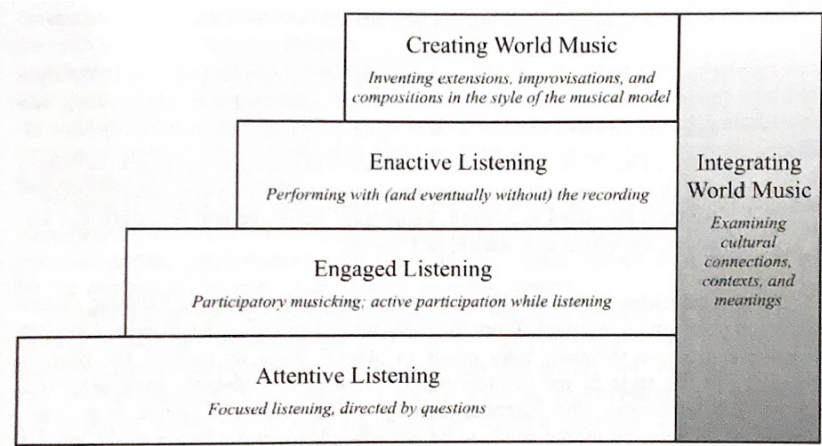
II. 교수법적 배경

Patricia S. Campbell에 의해 창안된 세계 음악 교수법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Campbell(2004)은 “문화권 내에서 음악을 어떻게 지도하고/전달하고/수용하고/학습하는지, 그리고 그 학습 과정이 교실에서 어떻게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세계 음악 교수법을 체계화하여 고안하였다(p. 26).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 음악 교수법은 음악이 지닌 문화적 고유성과 특수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다 “다원적인 관점”(pluralistic perspective)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넓혀주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다(Campbell, 2004, p. 16). 음악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교수법적 원리는 다양한 형태의 감상활동과 감상 제재곡을 직접 연주하고 창작해 볼 수 있는 참여적 형태의 집합적 지도 원리라 볼 수 있다. 각국의 다양한 민족 음악을 세계 음악 교수법 5단계로 적용한 예시들은 Smithsonian Folkways Recordings(www.folkways.si.edu)에서 찾아 볼 수 있다[Figure 1].



[Figure 1] Lesson plan examples from smithsonian folkways recordings (www.folkways.si.edu)

세계 음악 교수법은 단계 순서상 주의력 감상(attentive listening)으로 시작한다. 이는 순차적 접근 방식이라기보다 학교 현장의 교사의 자율성과 제재곡의 특성에 따라 순서를 재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2].



[Figure 2] Five stages of world music pedagogy (Coppola et al., 2020, p. 17)

1. 주의력 감상(Attentive listening)

주의력 감상 단계는 교사에 의해 “방향성 있는 감상”(directed listening)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세계 음악 교수법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Campbell, 2004, p.55). 여기서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감상 제재곡을 들으며 음악의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수렴적 사고를 주로 하게 된다. 초기 감상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제재곡의 악기편성, 셈여림, 음색, 박자, 주요 리듬패턴, 주선율, 악곡의 분위기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미리 보여 주어야 한다. 선정된 악곡은 학습자의 집중력을 응집시킬 수 있도록 45초 정도의 짧은 샘플로 세 번 정도 들려주는 것이 권장된다(Campbell, 2016; Watts, 2018).

이밖에도 교사는 그림 악보(listening map)와 손가락 인형(finger puppet)을 활용하여 제재곡이 지닌 청각적 유형의 특징인 선율의 흐름을 가시화하여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oberts & Beegle, 2018; Watts, 2018). 이러한 방식은 제재곡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과 학습의 집중 및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높이는데 사용이 된다(Watts, 2018). 본질적으로 주의력 감상 단계는 학생들은 반복적인 음악 감상으로부터 감상 제재곡이 지닌 미묘한 음악적 어법 및 뉘앙스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Roberts & Beegle, 2018).

2. 참여적 감상(Engaged listening)

참여적 감상은 학생들이 연주, 즉 음악 하기(music-making)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가사가 있는 제재곡의 경우 원어(original language)가사를 흥얼거리며 유사하게 따라하는 가창을 포함하여, 리듬 연주, 선율 연주, 신체 표현 등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감상 활동에 곁들여 시도해 볼 수 있다(Bartolome, 2019). 제재곡을 감상하는 동안 학생들은 2박 혹은 3박 계열 등의 일정박에 맞춰 걸어보거나 뛰어보는 등 음악과 신체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가사가 없는 기악곡의 경우 선율에 맞춰 콧노래(humming)를 부르거나, 화음을 넣어보기도 하고, 반복되는 선율이나 리듬을 악기로 연주해보고, 주선율을 선율 악기로 연주해보거나 반복되는 리듬이나 형식 등을 안무로 창작하는 활동 등이 이 단계에 적합하다(Bartolome, 2019; Campbell, 2016; Roberts & Beegle, 2018). 참여적 감상단계에서의 학습 형태는 학습자가 청각적(aural), 분석적(analytical), 근감각적(kinesthetic)자극으로 세 가지 학습적 양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참여적 감상 단계는 수동적인 감상활동에서 벗어나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감상 제재곡에 음악적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3. 주도적 감상(Enactive listening)

주도적 감상 단계는 학습자가 감상 제재곡과 유사한 수준으로 연주하는 단계이다. 감상 제재곡이 녹음 파일(recording)이거나 실제 연주(live model)의 형태이건 상관없이, 교사는 감상 제재곡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학생들이 악곡이 지닌 음악적 요소에 따른 특징(i.e.,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 등)을 실제와 같은 수준으로 모방하도록 하는 단계에 스스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상 제재곡과 학생들의 연주가 “음악적으로 동일한 수준”(in musical sync)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을 때(Campbell, 2016, p.98), 주도적 감상의 목표가 달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사가 있는 악곡의 경우, 교사는 노랫말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악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범창을 해주기 보다 한 소절씩 모델링 해주는 접근법이 더욱 효과적이다(Roberts & Beegle, 2018). 세 번째 단계인 주도적 감상단계 까지가 감상 제재곡이 필요한 단계이며, 세 단계가 창작 단계에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4. 창작(Creating)

창작단계는 학생들의 주도하에 개개인의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감상 제재곡이 지닌 음악적 특징을 참고하거나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 즉흥연주, 가사 만들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Roberts & Beegle, 2018). 이는 발산적 사고를 통한 다양한 음악적 아이디어와 수렴적 사고를 통한 아이디어의 선택이 필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의 창작의 결과가 “단순히 감상 제재곡을 양적으로 조금 늘리거나 확장된 형태”(Campbell, 2016, p.96)라 할지라도, 창작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Roberts와 Beegle (2018)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세계 음악 교수법의 창작단계의 방법 6가지는 다음과 같다:

- 감상 제재곡의 확장: 학생들이 악기편성을 새롭게 하거나, 제재곡 앞부분에 신체 타악기로 새로운 음악적 동기부분을 창작하는 활동
- 음악적 구조 탐색: 제재곡의 반복되는 리듬이나 선율 구조를 의미 없는 음절로 가창하기(scatsinging) 등 선율을 흥얼거리는 창작 활동
- 작곡: 개인 혹은 모둠별로 작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선율을 창작하는 활동
- 즉흥 연주: 감상 제재곡에 짧은 선율을 부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재곡의 특징적인 선율이나 리듬 패턴에 근거한 즉흥연주 활동
- 믹싱: 제재곡과 다른 문화의 음악적 구성요소를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 장르를

창작하는 활동

- 작사 및 작곡: 선율과 화성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이 전제하에 감상 제재곡을 듣고 느낀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작곡하는 창작 활동

5. 통합(Integrating)

통합 단계는 세계 음악 교수법의 최종 학습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제재곡과 사회 문화적 배경 혹은 제재곡과 타 교과목과의 연결로 학습자의 문화적 자각(cultural awareness)을 극대화 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Campbell, 2016; Roberts & Beegle, 2018). 예를 들어, 교사는 감상 제재곡이 지닌 문화적 배경을 학습자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 역사, 지도, 언어, 음식, 반주 악기, 의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음악은 본질적으로 사회 문화적,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 방법이 통합 단계에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통합 단계는 세계 음악 교수법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으며, 미술, 역사, 지리, 과학, 체육, 언어, 사회, 수학 등과 같은 타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음악적 이해를 한층 확장 시킬 수 있다.

통합단계에서 간학문적 요소를 제시할 때 교사는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령기의 학생들은 학습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때 더 빠르게 학습하고 오래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시각적 학습자(visual learner)이다(Roberts & Beegle, 2018). 따라서 초등 교육 현장에서 타 교과목과의 연계된 학습 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높은 교육적 효과 거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통합단계는 교수법상 주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지만, 때에 따라서 학생들의 간문학적 사전지식과 제재곡을 연결시키기 위한 동기유발의 일환으로 도입부분에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Bartolome, 2019; Roberts & Beegle, 2018).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 중 사례 연구(case study)를 주요 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Creswell & Poth, 2018). 이 접근법을 통해, 연구자는 초등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세계 음악 교수법에 대한 교수법적 이론과 실재를 학습해 보도록 하고, 교수법에 대한 의미를 예비교사와 학습자로서 탐색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사유 과정과 성찰, 개별 면담, 그리고 학급 토론은 교수 학습 방법론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예비 교사로서의 개별적 전문성 신장에 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

였다. 결과적으로 이를 관찰 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의 틀로 사례 연구를 본 연구 방법론에 적용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총 20명으로, 모두 A 교육대학교 초등음악교육과 심화 과목인 음악과 교수법 수강생들이다. 6명의 남학생과 14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된 초등 예비 교사들은 2024년 1학기 동안 다양한 음악 교수법(i.e., 코다이, 오르프, 달크로즈, 파이어라벤드, 세계 음악 교수법)을 이론적으로 학습하였다. 그 뒤에 각 단계별 혹은 교수법적 이론의 틀을 제재곡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도안 작성과 모의 수업을 통해 교수법적 의미를 깊이 성찰해 보았다.

세계 음악 교수법의 사례 연구는 예비 교사들의 교수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수법적 시사점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코다이, 오르프, 달크로즈 등 타 교수법에 비해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교수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제공한 질적인 데이터는 모두 익명성을 보장하여 연구 결과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절차

데이터 수집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5주에 걸쳐 수집되었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된 자기 성찰지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비형식적인 대화(informal conversations), 개별 면담, 그리고 학급 토론을 활용하였다(Creswell & Poth, 2018; Stake, 1995).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사례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했다. 바로 관찰자와 연구자로서의 선택적 인식이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점이다(Patton, 2002). 따라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동일한 질적 연구 방법 내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종류를 수집하는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Creswell & Poth, 2018). 이와 같이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수집하는 과정은 각 연구 참여자들의 교수법적 이해와 경험에 대한 공통된 주제를 비교하는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자가 지도한 세계 음악 교수법 강의는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제재곡을 함께 적용해보면서 이론을 학습하는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해 선정된 제재곡은 <Chicitios pero Picos>이다. 이 곡은 연구자가 세계 음악 교수법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미국 텍사스 주립 대학교(Texas State University)의 음악교육과에 재직중인 Amanda C. Soto 교수로부터 배운 대표적인 세계 음악 교수법의 제재곡이다. 악기 편성은 아코디언, 멕시코 현악기인 바조 섹스토(bajo sexto), 베이스 기타, 드럼으로 구성되었으나, Soto 교수가 편집한 악보는 학교 현장에서 지도에 용이하기 위해 아코디언과 바조 섹스토 파트를 소프라노 리코더로 대체되었으며, 베이스 기타를 오르프 베이스 자일로폰(orff bass xylophone)으로 대체 편성되었다[Figure 3].

Chicitios pero Picos
Los Polkeros de Ben Tavera King

Arr. A. Soto

A Section

To Coda B Section

D.S. al C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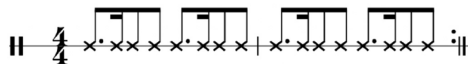
[Figure 3] <Chicitios pero picos>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악곡의 문화적 맥락을 학습하는 통합(integrating) 단계로 감상 제재곡의 문화적 맥락을 논의하였다. 이 제재곡은 라틴 음악의 콤비아(cumbia)라는 장르이다. 그 용어의 기원은 학자마다 이견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성들의 특정 춤을 의미하는 “에콤비”(ekombi), 드럼을 의미하는 “응콤비”(nkumbi), 중앙아프리카의 의식적 춤을 의미하는 “키콤비”(kikumbi), 여성의 다산을 장려하기 위한 의식인 “콤바”(khomba)

등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며, 이처럼 콰바의 정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둘러싼 다양한 어원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D'Amico, 2013). 콰바의 기원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설명에 간학문적 요소를 더하기 위해 연구자는 콜롬비아 카리브 연안의 지도를 통해 지리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집중력 감상(attentive listening)단계에서는 감상 제재곡의 음악적 요소와 구조에 중점을 두고 학습이 이루어졌다. 주로 수렴적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활용하여 감상 핵심 포인트를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청각적 주의를 집중시켰다. 예를 들어, 어떤 악기를 들었는지, 악곡의 스타일은 어땠는지, 템포는 어떤지, 익숙한 음악 스타일인지, 반복되는 리듬 혹은 선율 패턴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변을 찾으며 감상하도록 요구했다.

참여적 감상(engaged listening)단계에서는 감상 제재곡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연구 참여자들이 능동적 참여를 하도록 장려하였다. 참여적 의식화는 커뮤니티 음악의 목적과 매우 유사한데, 청취자와 음악가가 함께 음악을 만들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감상 제재곡에 어울리는 음악적 참여와 대체 악기를 사용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감상 제재곡과 매우 유사한 방식 혹은 그에 필적할 만한 연주로 참여하였다. 여기서 감상 제재곡에 활용된 악기를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 참여하도록 했다. 선정된 제재곡은 반복적인 리듬이 특징인데[Figure 4],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오스티나토 역할을 하는 반복되는 북 리듬 패턴을 여러 가지 무물 악기(e.g., 리듬스틱, 귀로, 우드블록 등)로 대체하여 연주하면서 단순히 청취자가 아닌 연주자로서 참여하였다.



[Figure 4] Drum rhythm pattern

주도적 감상(enactive listening)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감상 제재곡의 악보를 읽고, 실제 연주 수준까지 음악을 연주해보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악보를 통해 음악을 이해하고, 동시에 음악을 들으면서 제재곡의 음악적 스타일과 특징을 파악하여 연주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음악적 스타일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재현하기 위해 감상 제재곡으로 부터 반복적인 리듬 패턴, 선율 구조, 간단한 화성진행(I-V) 등을 집중적으로 듣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복적인 감상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 악기들로 구성된 악보를 보고 모듬별로 악기를 선정하였다. 소프라노 리코더의 경우 원곡의 아코디언의 음색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멜로디언으로 대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주를 녹화한 뒤에, 실제 음원과 비교하여 들어보는 활동도 주도적 감상 단계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작(creating)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 간의 작곡 활동, 즉흥 연주 등을 통한 원곡의 확장을 주요 학습 활동으로 진행했다. 감상 제재곡의 악곡 형식 중 독주 부분(solo section)을 창작 단계의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들로 4마디에 해당하는 즉흥연주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멜로디언과 orff bass xylophone 모듬은 창작 선율을 만들어 연주하고, 드럼 모듬도 무율 악기를 활용하여 특정 리듬을 만들어 오스티나토를 만들도록 제안했다.

3.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은 학급 토론과 연구 참여자들 간의 비형식적 대화, 연구자와의 개별 면담을 모든 자료를 전사화하여 워드 파일로 저장한 자료들과 20개의 개인별 자기 성찰지에 개방 코딩(open coding)과 축 코딩(axial coding)기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Croswell & Poth, 2018; Strauss & Corbin, 1998). 그 뒤에, 연구 문제와 일치하는 주요 연구 결과의 주제들을 구성하는 기본 코드(codes)를 식별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자주 언급되는 코드들을 묶어 주제로 범주화하여 종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의도와 생각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질적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였다(Merriam, 1998). 상기 데이터 분석 절차에 따라, 사례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와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였다.

IV. 연구 결과

데이터 분석 결과, 연구 전반에 걸쳐 나타난 주요 주제는 연구 참여자들이 예비 교사 혹은 학습자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 음악 교수법의 교수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확장,” “내용 영역 간 통합을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과 창의성 증진,” 그리고 “창작 단계에서 음악적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 증대”로 나타났다.

1.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확장

연구 참여자들은 세계 음악 교수법이 학습자에게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장시켜준다는 데 동의했다. A 학생은 지리적, 문화적 학습과 연계된 통합적 학습을 도울 수 있다면서, “세계 음악 교수법이 다양한 민족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다른 문화의 전통음악을 실험적으로 표현해보며, 음악의 스타일과 특징을 파악하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낯선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 참가자 S는 “음악이 세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매개체로서 학생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연구 참여자들은 음악을 통해 그 나라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문화와 정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음악 교수법에 더욱 의미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한 참가자 K는 세계 음악 교수법이 초등예비교사로서 타 교과와 통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첩”이라고 비유하면서, 세계 음악 교수법이 “글로벌 시대의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도구”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참가자 H는 “타 교과목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수법”이라고 언급했다. 그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세계 음악 교수법이 간학문적 연계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급 토론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만으로는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지도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답답한 상황을 공유했다. 이러한 현실은 예비 초등 교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부임하여 매일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증거를 보여준다. M에 따르면, “세계 음악 교수법은 모든 교과를 지도해야 하는데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수법”이며, 그는 “교과서만으로는 타 교과와의 통합을 하는데 어렵게 느껴지고,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적용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 음악 교수법에 대한 지식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에 더해 한 참가자 P는 “세계 음악 교수법은 음악적 지식 뿐 만 아니라, 그 음악이 만들어진 문화적 맥락과 의미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져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있는 학급의 경우 그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담은 제재곡을 선정하면 더욱 의미 있는 학습과정을 만들어 주는데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 경력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문화적 요소를 음악 수업에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과 교육학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음악 교수법을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음악과 교수법과 같은 심화과목에 편성할 필요성이 보인다.

2. 내용 영역 간 통합을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과 창의성 증진

학급 토론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음악하기와 관련하여 세계 음악 교수법이 연주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성과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 참가자 C는 “해당 음악을 연주하며 솔로 섹션을

간단하게라도 창작해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주의력 감상을 통해 얻은 청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연주에 일부가 되어가는 참여적 감상, 제재곡을 모방하여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주도적 감상, 그리고 악곡에 어울리는 새로운 선율과 리듬을 추가하는 창작에 이르기까지 단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체계적인 음악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에 대해 한 참가자 T는 체계적 음악 학습과정 안에 아이들의 음악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연주와 창작이 과정이 어렵지 않게 느끼게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단순한 감상이 아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감상에 참여하고, 창작과 더불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도와 수준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매우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T)

전반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능동적 음악 참여는 중요한 교육적 문제라고 믿었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기존의 “감상, 연주, 창작은 통합하여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한 참가자 J는 자기 성찰지에서 세계 음악 교수법이 뚜렷한 내용 영역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어 다른 교수법과의 차별점을 둔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음악과교수법 수업을 수강하면서 배운 여타 교수법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점이자 이점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3가지 영역인 ‘연주’, ‘감상’, ‘창작’ 영역이 모두 잘 드러나는 교수법이라는 것이다. 세계 음악 교수법은 원칙적으로 ‘감상’을 기본으로 하고, ‘감상’ 활동에서 출발하여 주도적인 ‘연주’ 활동을 하고 나아가 ‘창작’ 활동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악이나 가창 영역에만 편중될 수 있는 음악 수업에서 앞의 3가지 영역을 적절히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이점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음악적 체험 과정의 전반에 학습자의 ‘자발성’과 ‘음악적 창의성’이 개입되므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만한 교수법이다. (참가자 J)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 면담에서도 세계 음악 교수법이 초등교육의 감상 수업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수법이라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참가자 K는 학창시절의 감상 시간을 떠올려보면 “교과서에 있는 음악을 교사가 들려주고 학습지에 있는 문항에 대한 답을 적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으면서, 이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실기 위주의 수업보다는 감상 수업이 따분하다는 생각을 가졌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세계 음악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하면 “학생들에게 다소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감상 수업

을 감상, 창작, 통합으로까지 이어지며 다채롭고 흥미로운 감상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참가자 B 역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창의성 발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재곡을 감상한 후 직접 학생이 창작하는 활동 시간까지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수업 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향후 대학 졸업 후 교사가 되어서도 세계 음악 교수법을 적용해 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면담을 마치면서 세계 음악 교수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것이란 말을 남겼다.

3. 창작 단계에서의 음악적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 증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세계 음악 교수법의 창작 과정에서 학습자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제재곡인 <Chicitios pero Picos>에서 4마디를 즉흥 연주하는 과정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즉, 단순한 감상을 넘어 실제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진정성 있는 경험(authentic experience)이 학습자의 성취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 한 참가자 F는 창작 단계에서 타 문화의 음악을 “직접 느끼고 체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느낌을 전했다. 다른 연구 참여자 L은 이에 동의하며,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노래를 경험했을 때는 가사의 내용을 보고 노래를 따라 불러보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악기를 직접 연주하니 음악의 리듬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아, 콰바라는 장르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라며 진정성 있는 경험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창작 단계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세계 음악에 대한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성찰지 분석 결과, 한 참가자 M은 실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 음악을 지도할 때 창작 단계를 적용한다면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창작할 부분의 마디 수를 4마디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창작에 관련된 제재곡의 일부만 창작하도록 했을 때, 학습자는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이고 창작 연주를 하는 부분에서 큰 흥미를 느끼며 연주하고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세계 음악 교수법의 창작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어 몰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교과목에 대한 성취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사례 연구의 목적은 세계 음악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학습이 예비교사들에게 어떠한 교수법적 의미를 주는지 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예비 초등 교사들이 교사로서 혹은 학습자로서 느낀 교수법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연구 결과들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확장을 세계 음악 교수법의 이점이었다고 꼽은 점을 가장 주목할 만하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어린 시기의 학습자일수록 타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이 자아 정체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Campbell, 2015; Soccio, 2013; Váradi, 2022; Watts, 2018). 더욱이 세계 음악을 학습할 때 학생들의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이 증가하였고(Marsh et al., 2020),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접함으로써 타 문화와 강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아 문화적 유대감이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다(Papageorgiou, 202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세계 음악 교수법의 적용이 학생들에게 자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타문화에 대한 공감력과 수용력까지 다문화교육에서 올바른 자세를 심어줄 수 있다는 교육적 도구라는 점을 방증해준다.

다음으로 학급 토론에서 연구 참여자가 세계 음악 교수법을 타 교과와의 간학문적 요소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경첩”이라 비유한 점을 비추어볼 때, 세계 음악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에 노출 시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최근 통계청 연구(Statistics Korea, 2022)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이민자 수의 증가와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다문화 학생의 국적이 다원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 수용성에 도움이 되고 학교 수업의 범위 내에서 타 문화의 접촉경험을 늘릴 수 있는 세계 음악 교수법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준다.

세계 음악 교수법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본 연구 결과는 문화 감응 교육(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CRT)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한 공감 및 확장을 더욱 강화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 감응 교육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과 경험, 관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다(Gay, 2002, p. 107). 이 접근법에 따르면, 음악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학생들간의 지식의 격차를 메우고 타문화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소수 민족(minority group)의 문화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선별된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Gay, 2000). 다시 말해 교사는 제재곡을 선정할 때, 단순히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개시켜주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감응 교육을 기초로 하여 학급에 속해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 학생들의

문화권에서 유래한 음악을 포함 시켜야 된다는 의미이다(Abril, 2011; Rohan, 2011). 궁극적으로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음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문화적 지식의 격차를 좁히고,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 및 타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연결 고리인 세계 음악 교수법과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융합할 수 있는 문화 감응 교육(CRT)을 조합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4마디를 창작하는 과제로부터 진정성 있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까지 얻었다고 언급했다. 아마도 학생들은 세계 음악 교수법의 창작 단계 이전에 주의력, 참여적, 주도적 감상에서 동일한 제재곡에 대해 반복적이고 단계적으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작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게 성취감 달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설명된다.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 중심의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능동적인 참여도와 성취감을 보이거나(Hogenes et al., 2016), 창작 활동이 연주 활동에 비해 참여도와 성취감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Beimes,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세계 음악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습자들간의 성취감과 능동적 참여를 비교해 보기 위해 대조군과 통제군을 설정하여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세계 음악 교수법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세 영역인 감상, 연주, 창작 영역과 간학문적 요소를 통합하기에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이라는 점이다. 이는 Tyler(2013)의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원리인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과 일치한다. 즉, 주의력-참여적-주도적 감상 단계에서 제재곡 감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동일한 학습요소의 반복적 학습인 계속성, 단순한 것(주의력 감상 단계)에서 복잡한 개념(주도적 감상 및 창작 단계)에 연속적인 학습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인 계열성, 일반적인 음악 교과와 개념과 타 교과와의 간학문적 연계(통합 단계)를 통한 학습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통합성이 적용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교육과정처럼 교육내용을 학년군별, 학교급별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특정한 사회 문화적 특징을 담은 단일한 음악 제재곡으로 하나만으로도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을 통해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및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세계 음악 교수법을 적용했을 때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수법적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내에 수록된 세계 음악 제재곡의 교육 내용적 질과 유용성에 대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이 연구의 시사점은 교과서에

수록된 세계 음악 제재곡과 관련된 교육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간학문적 요소를 도출하여 감상, 연주, 창작 영역과 함께 융합함으로써 교육내용을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민족 음악을 지도안을 구성할 때 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아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세계 음악 교수법이 다문화 교육에서 효율적인 음악교수 학습 방법의 도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Abril, C. R. (2011). Opening spaces in the instrumental music classroom. In A. Clements (Ed.), *Alternative approaches to music education* (pp. 3-14).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Bartolome, S. J. (2019). *World music pedagogy, volume V: Choral music education*. London: Routledge.
- Beimes, S. (2022). Learner-centered pedagogy and student engagement in a virtual elementary instrumental music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40(4), 530-541.
- Campbell, P. S. (2004). *Teaching music globally: Experiencing music, expressing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5). Music in the culture of children. In Levine V. L., Bohlman P. V. (Eds.), *This thing called music: Essays in honor of Bruno Nettl* (pp. 17-27).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_____ (2016). World music pedagogy: Where music meets culture in classroom practice. In C. R. Abril & B. M. Gault (Eds.), *Teaching general music: Approaches, issues and viewpoints* (pp. 89-11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 D. (2023a). Enriching musical understanding through Kodály-inspired drawing activities: An action research stud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4), 189-209.
- _____ (2023b).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ek-6 music teachers' engagement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heir self-efficacy (Publication No. 30426923). Doctoral diss., Arizona State University.
- Coppola, W., Hebert, D. G., & Campbell, P. S. (2020). *World music pedagogy, volume VII: Teaching world music in higher education*. London: Routledge.
-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 among five approaches*. CA: Sage.
- D'Amico, L. (2013). Cumbia music in Colombia: Origins, transformations, and evolution of a coastal music genre. In *Cumbia* (pp. 29-48).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 Gay, G. (2000).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or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_____. (2002). Preparing for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3(2), 106-116.
- Hogenes, M., Van Oers, B., Diekstra, R. F., & Sklad, M. (2016). The effects of music composition as a classroom activity on engagement in music education and academic and music achievement: A quasi-experiment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4(1), 32-48.
- Kratus, J. (2017). Music listening is creative. *Music Educators Journal*, 103(3), 46-51.
- Marsh, K., Ingram, C., & Dieckmann, S. (2020). Bridging musical worlds: Musical collaboration between student musician-educators and South Sudanese Australian youth. In H. Westerlund, S. Karlsen & H. Partti (Eds.), *Visions for intercultural music teacher education* (pp. 115-134). New York: Springer.
- Merriam, S.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Ministry of Education (2022). *2022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22-33. Sejong: Author.
- Papageorgiou, P. (2023). Music of the world's cultures and feelings of connectedness: Interpersonal and social aspec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articipation in a culturally diverse music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24(17). <http://doi.org/10.26209/ijea24n17>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Regelski, T. A. (2004). *Teaching general music in grades 4-8: A musicianship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rts, J. C., & Beegle, A. (2018). *World music pedagogy, volume II: Elementary music education*. London: Routledge.
- Rohan, T. (2011). Teaching music, learning culture: The challenge of culturally responsive music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 University of Otago. Retrieved May 30, 2024, from <http://hdl.handle.net/10523/1865>

- Soccio, A. (2013). The relation of culture and musical play: A literature review. *Updat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2(1), 52-58.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Statistics Korea (2022).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 City, county, district* (Korean, authors' translation). Daejeon: Author.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Tyler, R. W. (2013).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Curriculum studies reader* (2nd ed., pp. 60-68). London: Routledge.
- Váradi, J. (2022).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of music education to the development of socio-emotional learning. *Sage Open*, 12(1), 21582440211068501.
- Watts, S. H. (2018). *World music pedagogy, volume I: Early childhood education*. London: Routledge.